

鶴은 왜 파도치는 바닷가에 그리나

조용진 지음 「東洋畫 읽는 법」...동양화 감상의 의문점 풀어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양화는 그 틀에 박힌 소재나 기법, 정형화된 형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근감을 준다. 동양화에는 동양인 특유의 달관과 철학 같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화를 눈여겨 들여다보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의문나는 점이 많아 고개가 갸웃거리진다. 가령, 5월초에 피는 목련꽃과 6월에 피는 해당화를 한 화면에 활짝 핀 것으로 그리는가 하면,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는 닭그림은 언제나 암탉이 아닌 장닭이다. 백로를 그릴 때는 한마리만 그리면서 버드나무 밑에서 헤엄치는 오리는 반드시 두마리를 그린다. 또 학은 어찌서 파도치는 바닷가에 그리는지, 모란꽃에는 왜 나비를 그리지 않는지, 궁금히 여겨지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동양화가 趙鏞珍교수(39·서울교육대)는 「東洋畫 읽는 법」(국판변형 212면·集文堂)이란 저서를 통해 이같은 궁금증들을 쉽고 흥미롭게 해명해주고 있다.

동양의 그림은 '읽는 그림'

옛사람들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들을 그렸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趙교수는 설명한다.

우선, 동양의 그림은 '읽는 그림'이었다. 화가도 그 그림에 담겨진 문자적 의미의 전달을 염두에 두고 그렸으며, 감상자도 그 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문자적 의미로 이해해야 했으므로 글자 그대로 '讀畫'였다.

'그림을 읽는다'는 말은 그림을 글자로 바꾸어 본다는 뜻이다. 그림의 意趣를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림을 문자 또는 문장으로 바꾸어 읽는 그림이 많았다. 이것은 화조도나 기명절지도, 초충도 외에 산수화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많다. 다만 이런 원리는 조선 중기인 약 300년 전부터 차츰 잊혀지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192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데, 서양미술사조가 유입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 잊혀진 상태에 있다.

어쨌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이 많은 것은 그림이 읽혀질 수 있도록 素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가령, 연못에 백로 한마리가 있는 그림이 있다. 이 경우, 시든 연잎과 잘 익은 연얼매가 특히 강조된다. 그러나 잎이 시들고 열매가 익을 10월이면 이미 백로는 필리핀으로 날아가버린 뒤이므로, 이 그림은 이치에 맞지

동양화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점들이 너무도 많이 눈에 띈다.

서로 피는 시기가 다른 꽃들이 같은

화면에 활짝 핀 상태로 그려지는가

하면, 화기들이 일정한 형식으로

수백년 동안 같은 그림을 그려 오기도

한다. 동양화는 '읽는 그림'이므로

그 원리만 알면 그런 의문은

쉽게 풀린다.

않는다. 그런데 이 그림은, 한걸음에 鄉試와 殿試에 연속 등과한다는 '一路連科'란 뜻으로 읽힌다. 즉, 백로 한마리인 一鷺가 한걸음이라는 一路와 발음이 같고, 연얼매인 蓮果가 연속 등과한다는 連科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이 말은 중국에서 과거를 보기 위해 길 떠나는 사람에게 쓰는 관용적인 인사말이었다.

또 장닭 한마리가 꼬끼요~하고 우는 그림은 '功名圖'가 된다. 장닭은 公鷄라고 쓰는데 공은 功과 음이 같고, 울 鳴은 이름 名과 음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가는 나타내고자 하는 문구의 뜻을 미리 정하고, 이것을 소재로 바꾸어 화면에 알맞게 배치했다. 따라서 동양의 그림을 읽는 방법은 ① 그려진 사물의 이름을 同音異字의 문구로 바꾸어 읽는 방법 ② 그려진 사물이 갖고 있는 寓意的 의미를 그대로 읽는 방법 ③ 그려진 사물과 관련된 古典의 명구나 일화를 상기하여 읽는 방법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까치와 호랑이' 그림은 잘못

우리가 세해에 흔히 보는 '까치와 호랑이 그림' (鶴虎圖)은 실은 독학의 원리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그림이다. 원래는 소나무·까치·표범을 그려야 맞는 그림이다. 표범의 豹가 중국에서는 報와 음이 같고, 소나무는 정월, 까치는 기쁨(喜)을 뜻하므로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만 오다'라는 뜻의 '新年報喜'가 된다.

게(蟹)는 왜 갈대와 함께 그릴까. 가령, 명나라 때의 화가 徐渭의 그림에, 게를 갈대로 묶어놓고 '진로'(傳蘆: 갈대를 전한다)라고 써



놓은 그림이 있다. '진로'는 중국에서 '진려'(傳臚)와 독음이 같다. '려'는 과거의 殿試에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내리는 음식이다. 따라서 이 그림은 장원급제를 비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럼 하필이면 왜 게일까. 게 딱지(甲)는 첫째(일등)를 뜻하기 때문이다.

단원 金弘道의 그림에 게 두마리가 갈대꽃을 물고 있는 그림이 있다. 게딱지가 둘이면 二甲, 즉 '이갑전려'가 된다. "두번의 과거에 모두 장원급제해서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받다"의 뜻이다.

공제 尹斗緒의 '흰사슴(白鹿) 그림'은 유명하다. 흰 사슴 뒤에는 향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다. 향나무의 柏에서 일백 백, 사슴 鹿에서 벼슬 祿을 취하여 '온갖 벼슬'을 뜻한다. 따라서 사슴 백마리를 그린 병풍은 '百祿圖'가 된다.

대나무를 바위에 곁들여 그린 竹石圖는 흔히 눈에 띄는 그림이다. 그런데 실상 대나무는 바위가 있는 척박한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이 그림은 장수를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祝壽圖'가 된다. 竹은 祝과 음이 같고, 바위는 壽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 5월 난초에 가을 귀뚜라미를 함께 그린 그림도 계절상 모순이다. 그러나 꽃이 핀 난초는 '자손'을 뜻하고 귀뚜라미의 한자는 중국에서 '관아'(官衙)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곧 '자손이 관청에 들다(벼슬하다)'란 뜻이다.

학은 바닷가에 살지 않는데...

'갈대와 기러기'를 그린 노안도(蘆雁圖)도 흔히 보는 그림이다. 이때 '노안'은 곧 '老安'과 통해 '편안한 노후'를 뜻한다. 이런 그림은 특히 대원군 집정시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을 유행시킨 장본인은 滯土 姜弼周이다. 그는 대원군 이하응의 파락호 시절부터의 경호원격이었는데, 대원군의 堂號가 老安堂이었던 것이다.

和齋 卞相璧의 고양이 그림은 너무도 유명하다. 두마리의 고양이 중 한마리는 나무등걸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나뭇가지에 서는 참새 여섯마리가 지지귀는 그림이다. 참새 작(雀)은 까치 작(鶻)과 음이 같아 '기쁨'을 나타내고, 고양이 묘(猫)는 70세를 뜻하는 모(耄)와 중국에서 음이 같다. 곧 70세 고회를 축하하는 뜻이 담겨 있다.

가장 흔한 소재인 모란꽃은 '부귀'를 뜻한다. 그런데 모란꽃에 나비를 그리지 않는 것은 향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속설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나비는 질수(耄壽·80세)를 뜻하므로, 모란꽃에 나비를 곁들여 그리면 "80세가 되도록 부귀를 누리다"란 뜻이 되어 의미가 제하되기 때문에 굳이 나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모란꽃(부귀)·목련꽃(옥)·해당화(당)를 함께 그리면 '富貴玉堂'의 뜻이 된다. 그러므로 모란꽃만 그려놓고 '부귀옥당'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다. 모란과 장닭을 함께 그린 것은 '富貴功名'을 뜻한다.

학은 소나무에 살지 않는데도 흔히 소나무 위에 오른 학을 그린다. 생태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경우는 '鶴壽松齡', 곧 오래 사는 것을 뜻한다.

학은 초원이나 늪지에 살지, 파도치는 바닷가에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이 파도치는 바닷가에 있는 그림은 이치에 안맞는다. 그럼에도 이런 그림을 즐겨 그린 것은 '一品當朝'(당대의 조정에서 벼슬이 일품에 오르다)로 임치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학은 千壽란 함의 외에 一品(제일)이란 뜻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 '일품'이 파도치는 바다, 즉 밀물 潮(아침 朝와 음이 같다) 앞에서 있어야만 뜻이 제대로 읽혀지는 것이다.

「東洋畫 읽는 법」은 이렇게 무려 150점의 도판으로 실례를 제시해가며 일일이 의문점을 밝혀주고 있어, 여러가지 畫題의 동양화를 감상하고 음미하는 길잡이가 되어 준다. 더구나 고전의 명구나 고사 일화를 모르거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도 쉽게 풀어놓고 있어 여간 흥미롭지 않다. 뒷부분에는 「한국화의 당면문제와 진로모색」이란 글을 붙여 한국화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아울러 돕고 있다.